

『조선동화대집』의 <외쪽의 꾀>에 나타난 몽골 설화의 화소(話素) 고찰

신 원 기*

차 례

- | | |
|--------------------------------|----------------------------------------|
| I. 들머리에 | IV. <외쪽의 꾀>와 몽골 설화의 화소
친연성(親聯性)의 의미 |
| II. <외쪽의 꾀>와 몽골 설화의 화
소 대비 | V. 맺으면서 |
| III. <외쪽의 꾀>와 몽골 설화의 화
소 분석 | |

국문초록

본고는 ‘꾀쟁이 하인’의 최초 기록인 <외쪽의 꾀>를 기본 텍스트로 하여, 한국과 몽골의 ‘꾀쟁이 하인’ 설화의 화소(話素, motif)를 비교했다. 한국 설화 <외쪽의 꾀>와 몽골 설화 <사냥을 해서 공을 세우다>, <서낭나무에 묶여 고질병을 고치다>, <대머리 일곱 명과 모뜨고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화소는 ‘자신에게 불리한 글 내용 바꾸기’, ‘속박되어 나무에 매달리기’, ‘제3자를 이용해 나무에서 탈출하기’, ‘비현실계로 가해자 속이기’, ‘가해자 살해와 가해자의 딸(또는 재산) 차지하기’ 등이었

* 동천고등학교 교사.

다.

이러한 공통 화소가 구체적인 이야기에서 실현될 때는 나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몽골의 설화는 서로 비슷한 화소를 공유했고, 어떤 경우에는 그 화소의 배열도 비슷했다. 즉, ‘화소 존재의 친연성’과 ‘화소 배열의 친연성’이라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화소의 친연성(親聯性, affinity)이 구비문학의 전승과 연구에 시사하는 바는 네 가지였다. 첫째, 한국과 몽골의 ‘피쟁이 하인’ 설화는 전파에 의해 생성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둘째, 한국 ‘피쟁이 하인’ 유형에서 상전(上典) 살해의 화소는 몽골 설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셋째, 한국 설화는 신분적 가치를 중시하고, 몽골 설화는 물질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것이었다. 넷째, 이야기 전체의 전파가 아니라, ‘화소의 전파’를 상정할 수 있다는 점이였다.

주제어 : 피쟁이 하인, 화소의 친연성, 몽골 설화의 영향, 신분적 가치, 물질적 가치, 화소의 전파

I. 들머리에

1926년에 출판된 심의린(沈宜麟)의 『조선동화대집(朝鮮童話大集)』은 우리말 설화의 최초 기록이다. 설화는 구비문학이고 말로 전승되기에 변이와 소멸의 가능성을 항상 지니고 있다. 이러한 소멸의 가능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채록과 기록이다. 구비문학인 설화의 기록은, 말의 기록일 때 그 생명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설화를 우리말로 기록한 최초의 서사물인 『조선동화대집』은 한국 설화의 기원과 변이에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조선동화대집』에 <외쪽의 피>라는 ‘피쟁이 하인’ 유형의 설화가 한 편 실려 있다. 현재 ‘피쟁이 하인’ 유형 설화는 약 40여 편의 각편(各篇)이 존재한다.¹⁾ 그만큼 향유층이 두터웠고, 또 즐겼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 본고는 <외쪽의 피>가 다른 ‘피쟁이 하인’ 유형의 설화에 앞서서 원형적인 각편이라고 일단 규정한다. 그 근거는 기록 및 출판 시기가 다른 각편에 비해서 가장 빠르기 때문이다.²⁾

‘피쟁이 하인’ 유형의 설화에 대한 접근은 거짓말이나 지혜로 상대를 속이는 이야기로 본 연구와,³⁾ 하인과 상전의 노주(奴主) 대립에서 계층 갈등을 읽어내고 있는 연구로⁴⁾ 크게 나눌 수 있다. 즉 ‘피쟁이 하인’에서 ‘피쟁이’에 집중하면 트릭스터(trickster)⁵⁾ 연구가 되고, ‘하인’에 집중하

-
-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한 『한국구비문학대계』에 30편 정도, 임석재의 『韓國口傳說話』에 10편 정도 전하고 있다.
 - 2) 물론 기록 시기가 빠르다고 해서 반드시 원형일 수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생성 시기가 오래된 이야기가 더 본원적이라는 주장을 따르기로 한다. 왜냐하면 일찍 기록된 이야기는 훗날 기록된 이야기보다 평균적으로 생성 시기가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카트린 피게-알더(Kathrin Pöge-Alder) 지음, 이문기 옮김, 『민담, 그 이론과 해석』, 유포서적, 2009, 161쪽.
 - 3) ① 조희웅, 『트릭스터譚의 史的 小考』, 『說話學綱要』, 새문사, 1989. ② 김현선, 「건달형 인물이야기의 존재 양상과 의미」, 『경기어문학』 제8집,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90. ③ 나수호, 『한국 설화에 나타난 트릭스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④ 하은하, 「<피쟁이 하인> 설화의 변형을 통해 본 트릭스터의 순기능과 역기능」, 『문학치료연구』 제34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5.
 - 4) ① 신동훈, 「신분갈등 설화의 공간구성과 주제」, 『관악어문연구』 제14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9. ② 정준식, 「‘피쟁이 하인 설화’의 형성과정과 전승양상」, 『문화콘텐츠연구』 제11집, 동의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2005. ③ 김국희, 「상전 속인 하인 모티프의 갈래별 전개」, 『한국문학논총』 제44집, 한국문학회, 2006.
 - 5) 트릭스터(trickster)의 개념 정의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긍정성과 부정성, 세속성과 신성성, 인간성과 동물성, 질서와 무질서 등이 혼합된 개념이다. 단순하게는 ‘피쟁이’로 볼 수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피쟁이와 트릭스터는 다르다. ‘피’는 트릭스터의 특성 중 일부이기 때문이다.(트릭스터의 개념 정의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나수호, 『한국 설화에 나타난 트릭스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8-31’을 참조할 것.) 트릭스터가 등장하는 이야기를 ‘사기담(詐欺譚)’으로 규정하기도 한다.(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 민속의 세계』 7, 고려대학교 민족

면 계층 갈등을 읽어내는 연구가 된다. 그 외에 ‘피쟁이’와 ‘하인’ 두 번수에 모두 집중하여 ‘피쟁이’에서는 신화성을, ‘하인’에서는 사회성을 탐구한 연구도 있다.⁶⁾

위의 선행 연구들은 ‘피쟁이 하인’ 설화의 형성과 구조를 밝히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하지만 이러한 유의미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피쟁이 하인’ 설화의 기본적인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그 의문은 상전(上典)의 가족을 모두 죽이는 사건 전개와 그 결말에 대한 것이다. 하인이 상전과 그 가족을 모두 죽이고 상전의 딸과 혼인하는 결말은 우리 설화에서 찾아보기 힘든 아주 이질적인 화소(話素)이다. 구비문학인 설화는 민족을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학이고,⁷⁾ 어떤 의미심장한 울림을 주는 내용이어서,⁸⁾ 이질감보다는 동질감이 더 많이 나타나야 한다. 따라서 ‘피쟁이 하인’ 설화에 나타나는 사건 전개와 결말이 왜 이질적이고 공감하기 힘든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피쟁이 하인’ 설화의 원형적인 각편인 <외쪽의 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전반부에는 주인을 속이는 외쪽이가 나타나고, 후반부에는 외쪽이의 죽을 위기와 극복이 나타난다. 그런데 외쪽이가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는 후반부는 다른 설화 유형에서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사건이 나온다. 설화에서 죽을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조력자의 도움을 받든지, 달아나든지, 상대방과 대결하든지 등등의 형태이다. 그런데 <외쪽의 피>에서는 ① 나무에 매달리기 ② 제3자를 이용해 나무에서 탈출

문화연구원, 2001, 135쪽.)

6) 신연우, 『상전 속인 하인』 설화의 사회성과 신화성, 『한국민속학』 제37집, 한국민속학회, 2003. 신연우는 이 논문에서 설화의 속임수는 신화의 속임수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설화의 속임수는 악의 표상이지만 신화의 속임수는 능력의 표시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피쟁이’에서 ‘신화성’을 찾아내고 있다. 또한 신화는 상하관계가 아닌 대립을 보이지만, 상전-하인은 상하 관계를 보여준다고 한다. 이를 ‘사회상의 반영’으로 본다.

7) 장덕순 외, 『口碑文學概說』, 일조각, 1971, 8쪽.

8) 이나미, 『웅, 호랑이 탄 한국인과 놀다』, 민음인, 2010, 292쪽.

하기 ③ 용궁으로 상전(가해자) 유혹하기 ④ 상전(가해자) 살해와 딸 차지하기 등의 순차적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건 전개와 결말은 다른 설화에 비해서 상당히 이질적이다. 서로 죽이려고 하는 사건 전개도 이질적이고, 하인이 상전을 죽이고 상전의 딸과 혼인하는 결말은 더 이질적이다. 화합과 합일에 의한 대립 구조의 해소로 마감되지 않고,⁹⁾ 선행필보(善行必報)나 악행필벌(惡行必罰)이라는 설화의 도덕관과도 이질적이어서,¹⁰⁾ 청자나 독자들도 이러한 사건 전개와 결말을 불편해한다.¹¹⁾ 더구나 하인을 상자에 넣어 나무에 묶고, 나무에 묶인 하인은 죄 없는 제3자를 대신 죽게 하고, 다시 상전 앞에 나타난 하인은 용궁에 다녀왔다고 주인을 속이는 내용은 다른 설화에서 찾을 수 없는 아주 독특한 화소(話素)이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이야기와 화소를 몽골 설화에서 찾을 수 있다. 주인공이 ‘피쟁이’ 인물로 특징이 일치하고, 사건 전개와 결말이 <외쪽의 피>와 비슷하다. 그리고 몽골 설화에서는 자신이 살기 위해 제3자를 이용하여 탈출하는 행위와, 가해자의 살해라는 결말이 충분히 예상되는 구성이다. 우리에게 이질적인 화소가 몽골 설화에서는 이질적이지 않게 나타난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과 몽골의 ‘피쟁이 하인’ 설화가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그 양상과 의미를 고구하고자 한다. 즉, ‘피쟁이

9) 이재선, 『한국문학 주제론』,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9, 91쪽.

10) 김화경, 『한국의 설화』, 지식산업사, 2002, 274-275쪽.

11) 논자가 <외쪽의 피> 설화를 초·중·고 학생들에게 읽고 그 감상을 물은 결과, 대체로 그 결말 부분이 이상하고 불편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상전이 하인을 죽이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하인이 상전을 죽이는 것은 더 이해하기 힘들었고, 하인이 상전의 딸과 혼인하는 것은 도저히 공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에 비해, 동질감보다는 이질감을 많이 느꼈다고 답하는 학생이 많았다. 설화로 대표되는 구비문학은 공동작의 문학이기에, 청자나 독자가 공감적 정서를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유독 이 이야기는 그렇지 않았다.(학생들의 감상 반응 양식은 논문 끝에 첨부했음.)

하인'의 최초 기록인 <외쪽의 피>를 기본 텍스트로 하여, 한국과 몽골의 '피쟁이 하인' 설화의 화소를 비교하고자 한다. 두 나라 설화의 화소 비교를 통해, 우리 설화에 나타나는 이질적인 화소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두 나라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화소가 무엇인지를 살필 것이다. 그 다음은 화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이 구비문학의 전승과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힐 것이다.

II. <외쪽의 피>와 몽골 설화의 화소 대비

우선 해당 설화의 서술 순차 단락을 제시하기로 한다. 먼저 <외쪽의 피> 이야기의 서술 순차 단락을 제시하고, 화소를 살피기로 한다. 그리고 이에 대비 되는 몽골 설화의 서술 순차 단락과 화소를 제시하기로 한다. <외쪽의 피>와 대비되는 몽골 설화는 총 3편이다.¹²⁾ 한 편은 후반부의 사건 전개와 화소가 거의 비슷하고, 두 편은 부분적 사건 전개와 화소가 비슷하다. <외쪽의 피>와 대비되는 몽골 설화는 <사냥을 해서 공을 세우다>(1984), <서낭나무에 묶여 고질병을 고치다>(2003), <대머리 일곱 명과 모뜨고르>(2007) 등이다. 이 3편은 한국어로 번역된 설화이며, 출판 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살피기로 한다.

12) 편수가 3편으로 한정된 이유는 현재 출판된 한글 번역본 몽골 설화집이 4~5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4~5권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한국 <외쪽의 피>와 유사한 몽골 설화는 3편뿐이었다. 이는 논자가 몽골어 원문을 읽을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하다. 차후로 다른 번역본이나 몽골 원문 설화에서 <외쪽의 피>와 유사한 이야기를 찾을 수도 있다. 이야기의 편수 또는 각편이 3편으로 한정되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를 기초 자료로 하여 논의를 전개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중국, 일본, 베트남, 동남아 설화를 두루 살펴보았지만, <외쪽의 피>와 유사한 설화는 찾지 못했음을 밝혀둔다.

1. <외쪽의 껌>의 서술 순차 단락과 화소

1.1 <외쪽의 껌>의 서술 순차 단락¹³⁾

1. 주인 양반은 외쪽이를 학대하고, 외쪽이는 불불 떨며 지내다.
2. 과거를 보려고 서울로 가던 주인 양반이 밥을 사 주지 않자, 외쪽이는 주인의 말을 팔아 밥을 사먹다.
3. 경성에 도착한 주인 양반이 팔죽을 사오라고 하자, 외쪽이는 콧물을 죽그릇에 빠뜨렸다고 속여 자기가 먹다.
4. 여러 가지로 화가 난 양반이, 외쪽의 등에 외쪽을 죽이라는 글을 써서 집으로 내려가게 하다.
5. 집으로 내려가던 외쪽이가 콩가루 항아리를 이용해 꼴을 얻다.
6. 외쪽은 꿀떡을 서당 학동(學童)에게 주며, 자신을 죽이라는 글을 사위 삼으라는 내용으로 바꾸다.
7. 양반의 안부인은 외쪽의 등에 있는 글을 보고 망설이다.
8. 집으로 온 주인 양반은 외쪽을 강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외쪽이를 묶어 상자에 넣어 버드나무 가지에 매달아 두다.
9. 외쪽은 안질 앓는 할멈을 속여 자기 대신 죽게 하다.
10. 외쪽은 얼마 후에 주인 양반을 찾아가, 자신이 용왕의 사위가 되었다고 하며, 주인도 용궁에 가면 많은 보패를 얻는다고 하다.
11. 외쪽의 껌에 빠져 주인 일가는 익사하고, 외쪽은 주인의 딸과 부부가 되다.

<외쪽의 껌>은 주인에게 학대받던 하인 외쪽이가 죽을 위기를 극복하고, 주인의 딸과 결혼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주인은 외쪽이에게 여러 가지 가해 행위를 하지만, 외쪽은 껌으로 이를 극복하고, 주인 일가를 물에 빠뜨리고 그 딸을 차지한다.

13) 분석 텍스트는 ‘신원기, 『조선동화대집과 설화교육』, 보고사, 2017, 297-305쪽.’ 소재 <외쪽의 껌>로 한다.

1.2 <외쪽의 피>에 나타난 화소 고찰

톰슨(Stith Thompson)은 화소를 이야기의 가장 작은 요소라고 정의했다.¹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전승적인 이야기를 유형(類型, type)이라고 한다면, 화소(話素, motif)는 이야기를 이루는 독립된 특이한 요소들이다.¹⁵⁾ 즉, 화소는 독특한 물건, 행위자, 행위, 장소 등이 될 수 있는데, 변하지 않는 전승의 한 부분이다.¹⁶⁾

화소를 독특한 이야기 요소들이라고 한다면, <외쪽의 피>에 나타나는 주요 화소는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외쪽이가 주인을 속이는 화소이다. 외쪽이는 주인(가해자)의 말을 팔아서 자신의 이익으로 만들고, 주인의 음식을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 이를 각각 ‘(피쟁이가) 가해자의 말 팔기’, ‘(피쟁이가) 가해자의 음식 먹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화가 난 주인이 외쪽이를 죽이라는 글을 등에 써 붙이자, 그 글 내용을 사위 삼으라는 내용으로 바꾼다. 이를 ‘피쟁이가 자신에게 불리한 글 내용 바꾸기’라 할 수 있다. 말 팔기, 음식 먹기, 글 바꾸기 화소는 모두 외쪽이가 주인을 속이는 화소이므로, 이러한 화소를 묶어서 ‘(피쟁이)가 가해자 속이기’라고 할 수 있다. 외쪽이는 하인이지만, 피를 써서 주인의 명령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진행시킨다. 그래서 외쪽이의 특징을 ‘피쟁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화소로 설정할 수 있다.¹⁷⁾

14) Stith Thompson, *The Folktale*, Dryden Press, 1946, 415-416쪽. A motif is the smallest element in a tale having a power to persist in tradition... First are the actors... Second come certain items... In the third place there are single incidents...

15) 장덕순 외, 『口碑文學概說』, 일조각, 1971, 52쪽.

16) 카트린 피게-알더(Kathrin Pöge-Alder) 지음, 이문기 옮김, 『민담, 그 이론과 해석』, 유로서적, 2009, 92쪽.

17) ‘피쟁이’ 화소는 세계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THE CLEVER MAN’ 항목을 참조할 것. Stith Thompson, *THE TYPES OF THE FOLKTALE*, Indiana University, 1973, 431-464쪽.

둘째 화소는 외쪽이가 상자에 넣어져 나무에 매달리는 내용이다. 화가난 가해자가 피쟁이를 죽이기 전에 나무에 매달아 놓는 내용이다. 이를 ‘(피쟁이가) 속박되어 나무에 매달리기’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화소는 외쪽이가 지나가는 잔질개 할멈을 대신 나무에 매달고 자신은 탈출하는 내용이다. 눈병을 고칠 수 있다는 외쪽이의 말을 듣고, 잔질개 할멈은 자신의 눈병을 고치기 위해, 외쪽이 대신 상자에 들어가 나무에 매달린다. 이를 ‘(피쟁이가) 제3자를 이용해 나무에서 탈출하기’라고 할 수 있다.

넷째 화소는 외쪽이가 주인 양반에게 나타나서는 용궁에서 많은 보물을 준다고 주인 양반을 유혹하는 내용이다. 죽은 줄 알았던 외쪽이가 좋은 차림으로 자신 앞에 나타나자, 주인 양반은 외쪽이의 말을 너무 쉽게 믿어버린다. 이를 ‘(피쟁이가) 비현실계(용궁)로 가해자 속이기’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화소는 외쪽이가 주인 양반과 그 가족을 강물에 빠뜨리고, 딸만 살려 부부가 된다는 내용이다. 용궁에 가면 많은 보물을 얻을 수 있다는 외쪽이의 거짓말에, 주인 양반은 물론 그 가족 모두가 의사를 하게 된다. 이를 ‘(피쟁이의) 가해자 살해와 가해자 딸 차지하기’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핀 화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가해자 속이기
 - 1.1 가해자의 말 팔기
 - 1.2 가해자의 음식 먹기
 - 1.3 자신에게 불리한 글 내용 바꾸기
2. 속박되어 나무에 매달리기
3. 제3자를 이용해 나무에서 탈출하기
4. 비현실계(용궁)로 가해자 속이기

5. 가해자 살해와 가해자의 딸 차지하기

주인 속이기는 말, 음식, 글 내용 바꾸기로 나타난다. 주인은 상전(上典)이라고 해도 되고 가해자라고 해도 된다. 상자에 넣어진 상태는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속박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2. <사냥을 해서 공을 세우다>의 서술 순차 단락과 화소

2.1 <사냥을 해서 공을 세우다>의 서술 순차 단락¹⁸⁾

1. (빠라견창에게 한이 맺힌) 빠오얼레이따이 빠이인[이하 ‘빠이인’으로 칭함.]이 하오얼레이따이 노이안[이하 ‘노이안’으로 칭함.]에게 빠라견창을 고발하다.
2. 노이안은 빠라견창을 잡아와서 왜 빠이인을 속였냐고 묻다.
3. 빠라견창은 하급 관리들 앞에서 어른[노이안]의 말씀을 공박하기 곤란하다고 하다.
4. 노이안이 하급 관리들을 내보내자, 빠라견창은 재산 많고 호위자 많은 빠이인을 모욕하지 않았다고 하다.
5. 빠라견창은 빠이인이 보배 몇 개 때문에 자신을 고발했다고 하면서, 그 보배를 원래 노이안과 친왕께 주려고 했다고 하다.
6. 노이안은 (친구인 빠이인의 체면을 고려해서) 빠라견창에게 2년 고역(苦役)을 하되, 공을 세우면 속죄케 한다는 결판을 내리다.
7. 노이안이 빠이인과 사냥을 가서 빠라견창에게 꿩을 구우라고 하다.
8. 빠라견창은 똥맛이 나게 꿩을 굽다.
9. 노이안이 꿩고기가 왜 이러냐고 하자, 빠라견창은 꿩의 부모가 똥만

18) 분석 텍스트는 ‘주체혁 옮겨 엮음, 『몽고 민담』, 정음사, 1984, 375-379쪽.’ 소제 <사냥을 해서 공을 세우다>로 한다. 같은 책에 이 이야기 외에 피쟁이 ‘빠라견창’ 관련 설화가 11편 기록되어 있다. 이로 보아 몽골에서도 ‘피쟁이’ 또는 ‘피쟁이 하인’ 설화를 즐겨 향유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먹어서 그렇다고 하다.

10. 화가 난 노이안과 빠이인은 빠라견창을 묶어 등에다가 ‘죄가 있어 굶어 죽어야 하니, 누군라도 먹을 것을 주지 마라’는 글자를 써 붙여 쫓아버리다.
11. 빠라견창은 늙은 목인(牧人)에게 ‘사냥에 공을 세웠으니, 후한 상을 주라’고 바꾸어 달라고 하다.
12. 빠라견창은 노이안 부인에게 가서 등의 글을 보이고, 말 2마리와 많은 은화를 얻다.

빠라견창은 신분이 낮고 가난한 인물이다. 하지만 특유의 피를 이용해 부자들과 신분 높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인물로 등장한다. 여기서 빠라견창은 전형적인 피쟁이로 등장하고, 이야기의 전개나 주제도 무겁지 않다. 높은 신분의 노이안이 빠라견창에게 골탕을 먹게 되자, 그를 죽이려는 글을 등에다 써 붙여 쫓아낸다. 하지만 빠라견창은 글 내용을 바꾸어서 노이안의 부인에게 보이고 말과 은화를 얻는다.

2.2 <사냥을 해서 공을 세우다>에 나타난 화소 고찰

<사냥을 해서 공을 세우다>에 나타나는 주요 화소는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빠라견창이 노이안을 속이는 화소이다. 빠이인이 빠라견창을 노이안에게 고발하자, 빠라견창은 자신은 빠이인을 모욕한 적이 없다고 노이안을 속인다.¹⁹⁾ 그리고 빠이인과 사이에 문제가 된 보배는 사실 노이안에게 바치려고 했다고 거짓을 늘어놓는다. 이것을 ‘(피쟁이가) 보배로 가해자 현혹하기’ 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에 현혹

19) <사냥을 해서 공을 세우다>의 앞에 빠라견창이 빠오얼레이따이 빠이인을 속인 두 편이 이야기가 있다. <황금담비(金貂) 꼬리>에서, 색칠한 다람쥐 꼬리를 황금담비 꼬리라고 속여 말 4마리를 얻는다. 그리고 <보배로운 당나귀>에서는, 평범한 당나귀를 금과 은을 쏟는다고 속여, 은화 일천 냥과 말 50필을 얻는다. 주채혁 옮겨 엮음, 『몽고 민담』, 정음사, 1984, 366-374쪽.

된 노이안은 빠라견창에게 그렇게 큰 벌을 내리지 않는다. 노이안이 핥을 잡아 빠라견창에게 구우라고 하자, 빠라견창은 핥의 똥을 일부러 늦게 꺼내어, 똥맛이 나는 핥을 노이안에게 바친다. 이 사건은 ‘(피쟁이가) 핥을 냄새나게 굶기’ 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화가 난 노이안은 빠라견창의 등에다가 그를 굶겨 죽이라는 글을 써 붙여 쫓아낸다. 이에 빠라견창은 그 글을 후한 상을 주라는 내용으로 바꾸어 놓는다. 이를 ‘(피쟁이가) 자신에게 불리한 글 내용 바꾸기’ 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화소들은 모두 빠라견창이 노이안을 속이는 화소이므로, 이를 ‘(피쟁이가) 가해자 속이기’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화소는 빠라견창이 바꾼 글 내용을 가지고, 굶어 죽는 대신 후한 상을 얻는 내용이다. 빠라견창은 목인에게 부탁해, 자신에게 먹을 것을 주지 말라는 내용을, 후한 상을 주라는 내용으로 바꾼다. 그리고는 노이안의 부인에게 등의 글을 내보이며 말과 은화를 얻는다. 피쟁이 빠라견창은 노이안의 재산 일부를 차지한다. 이를 ‘피쟁이가 가해자의 재산 차지하기’ 화소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핀 화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가해자 속이기
 - 1.1 보배로 가해자 현혹하기
 - 1.2 핥을 냄새나게 굶기
 - 1.3. 자신에게 불리한 글 내용 바꾸기
2. 가해자의 재산 차지하기

3. <서낭나무에 묶여 고질병을 고치다>의 서술 순차 단락과 화소
 - 3.1 <서낭나무에 묶여 고질병을 고치다>의 서술 순차 단락²⁰⁾

20) 분석 텍스트는 ‘유원수 엮음, 『세계 민담 전집 3 몽골 편』, 황금가지, 2003, 140-149쪽.’ 소재 <서낭나무에 묶여 고질병을 고치다>로 한다. 같은 책에 이 이

1. 생계가 달라이 왕의 사령으로 일하면서, 그의 작은 마님과 정을 통한다.
2. 달라이 왕이 생계를 거짓말쟁이, 불한당이라고 모함하여 갖은 고문을 가하다.
3. 생계가 고문을 버티자, 달라이 왕은 그를 기둥에 묶어 태워 죽이기로 하다.
4. 달라이 왕은 생계를 묶어 서낭나무에 매달다.
5. 달라이 왕은 차를 마시고 생계를 죽이겠다면서 일단 돌아가다.
6. 그때 달라이 왕의 측근인 바트몽크 나라가 생계 앞을 지나가다.
7. 바트몽크가 생계에게 왜 그러고 있냐고 묻다.
8. 생계는 등의 고질병을 고치기 위해 서낭나무에 묶여 있는데, 하루만에 쾌차했다고 하다.
9. 바트몽크가 생계에게 누구냐고 묻다.
10. 생계는 거짓말 해본 적 없는 미친한 노예라고 하다.
11. 바트몽크는 자신은 고귀한 사람이고 등허리에 고질병이 있으니, 생계에게 당장 내려오라고 하다.
12. 생계는 목숨은 누구에게나 소중하니, 안 된다고 하다.
13. 바트몽크는 생계의 결박을 칼로 끊다.
14. 생계는 바트몽크를 부대에 넣어 나무에 묶고, 낮기 전에는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고 하다.
15. 바트몽크는 자신의 말[馬]을 생계에게 돌보도록 부탁하다.
16. 생계는 바트몽크의 말을 타고 떠나다.
17. 달라이 왕이 와서 바트몽크를 생계로 알고 태워 죽이다.
18. 다음날 생계는 달라이 왕에게 가서, 자신은 모함으로 죽었기에 염라대왕이 다시 살려주었다고 하다.
19. 달라이 왕은 생계에게, 염라대왕이 무슨 분부를 내렸냐고 묻다.

야기 외에 피쟁이 ‘척척 생계’ 관련 설화가 43편 기록되어 있다.

20. 생게는 말하기를, 염라대왕이 ‘달라이 왕은 많은 아내를 거느린 것이 죄이니, 생게가 하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고 하다.
21. 다음날, 생게는 달라이 왕의 작은 마님을 데리고 떠나나.

거짓말쟁이이자 피쟁이 생게는 달라이 왕의 사령으로 일하면서, 그의 작은 마님과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그러자 달라이 왕은 생게를 기둥에 묶어 태워 죽이려고 한다. 서낭나무에 묶여 꼼짝없이 죽게 된 생게 앞을 왕의 측근인 바트몽크 나라가 지나가자, 이렇게 하면 허리 병이 낫는다고 그를 속인다. 바트몽크는 생게 대신 죽고, 생게는 다음날 달라이 왕을 찾아가 염라대왕의 말을 전한다면서, 왕의 아내를 취한다.

3.2 <서낭나무에 묶여 고질병을 고치다>에 나타난 화소 고찰

<서낭나무에 묶여 고질병을 고치다>에 나타나는 주요 화소는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생게가 달라이 왕을 속이는 화소이다. 생게는 달라이 왕의 작은 마님과 정을 통하는데, 이것은 왕을 속이는 행위이다. 생게는 달라이 왕을 속이고, 작은 마님과 몰래 만나 틈을 보아 사귀고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이를 ‘(피쟁이가) 가해자 속이기’ 화소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생게가 서낭나무에 묶이는 화소이다. 달라이 왕은 생게가 자신의 부인과 정을 통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생게를 고문하고 나무에 묶어 태워 죽이기로 한다. 생게는 서낭나무에 묶이게 된다. 이를 ‘(피쟁이가) 속박되어 나무에 매달리기’ 화소라고 할 수 있다.

셋째는 생게가 바트몽크를 이용해 나무에서 탈출하는 화소이다. 서낭나무에 묶인 생게가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고 있을 때, 마침 왕의 측근인 바트몽크 나라가 지나가게 된다. 바트몽크가 생게를 보고 뭐 하는거냐고 묻자, 생게는 허리의 고질병을 고치는 중이라고 답한다. 마침 허리 병이 있던 바트몽크는 자신의 손으로 생게의 결박을 풀고, 대신 생게에게 자

신을 부대에 넣어 나무에 묶어달라고 한다. 생계는 바트몽크를 나무에 매달고 바트몽크의 말을 타고 그 자리를 떠난다. 이를 ‘(피쟁이가) 제3자를 이용해 나무에서 탈출하기’ 화소라고 할 수 있다.

넷째는 생계가 염라대왕의 말을 전한다면서 달라이 왕을 속이는 화소이다. 다음날 생계는 달라이 왕을 찾아간다. 달라이 왕이 어제 태워 죽였는데 어떻게 오늘 근사한 말을 타고 왔느냐고 하자, 생계는 염라대왕이 자신은 모함에 걸려 죽었다고 하면서 다시 보냈다고 한다. 염라대왕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피쟁이가) 비현실계로 가해자 속이기’ 화소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는 생계가 달라이 왕의 작은 마님을 차지하는 화소이다. 생계는 염라대왕이 ‘달라이 왕의 부인이 너무 많으므로 하나를 생계에게 주어라’고 했다면서, 다음날 달라이 왕의 작은 마님을 데리고 떠난다. 이를 ‘(피쟁이가) 가해자의 아내 차지하기’ 화소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핀 화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가해자 속이기
2. 속박되어 나무에 매달리기
3. 제3자를 이용해 나무에서 탈출하기
4. 비현실계(염라대왕)로 가해자 속이기
5. 가해자의 아내 차지하기

4. <대머리 일곱 명과 모뜨고르>의 서술 순차 단락과 화소

4.1 <대머리 일곱 명과 모뜨고르>의 서술 순차 단락²¹⁾

21) 분석 텍스트는 ‘데. 체렌소드눔 편저, 이안나 율김, 『몽골의 설화』, 문학과지성사, 2007, 517-523쪽.’ 소재 <대머리 일곱 명과 모뜨고르>로 한다. 같은 책에 ‘생활담-풍자담’이 모두 68편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 많은 편수가 ‘피쟁이’ 또는

1. 어리석은 대머리 일곱 명과 피 많은 모뜨고르가 살다.
2. 모뜨고르를 미워한 일곱 대머리가 모뜨고르의 집을 불태우다.
3. 모뜨고르는 불탄 집의 재를 이용해, 부자를 속여 금과 은을 얻다.
4. 일곱 대머리가 모뜨고르에게 금과 은은 어떻게 얻었냐고 묻다.
5. 모뜨고르는 시장에 가서 불탄 집의 재를 금과 은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6. 일곱 대머리는 각각 자기 집을 불태워 재를 가지고 시장에 가서, 재를 금과 은으로 바꾸려다가 멸시를 당하다.
7. 일곱 대머리는 모뜨고르가 거짓말을 한 것을 알고, 모뜨고르의 암소를 죽이다.
8. 모뜨고르는 죽은 암소의 피를 이용해 낙타 7마리를 얻다.
9. 일곱 대머리가 낙타 7마리를 어떻게 얻었냐고 모뜨고르에게 묻다.
10. 모뜨고르는 소의 피를 낙타 7마리와 바꾼다고 하니, 사람들이 낙타를 주고 소 피를 가져갔다고 하다.
11. 일곱 대머리는 7마리 암소를 죽여, 소 피와 낙타를 바꾸어 준다고 하여 봉변을 당하다.
12. 일곱 대머리는 속은 것을 알고, 모뜨고르의 아내를 죽이다.
13. 모뜨고르는 왕의 궁전에 가서, 자기 아내가 바느질을 잘 한다고 하여, 왕과 왕비로부터 다음 날 아내를 데려오라는 요청을 받는다.
14. 모뜨고르는 다음날 죽은 아내를 사나운 낙타에 싣고 궁으로 가다.
15. 왕의 개들이 낙타를 물려고 소동이 나서, (죽은) 아내가 땅에 떨어져 죽다.
16. 왕비는 모뜨고르에게 죽은 아내 대신 궁의 여인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다.
17. 모뜨고르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집으로 데리고 오다.
18. 일곱 대머리는 어떻게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냐고 묻다.

‘피쟁이 하인’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19. 모뜨고르는 죽은 아내를 살아 있는 아름다운 여인과 바꾸어 준다고 소리치면 된다고 하다.
20. 일곱 대머리는 자신들의 아내를 죽여, 죽은 아내를 살아있는 아내로 바꾸어 준다고 소리치다.
21. 사람들이 일곱 대머리를 흠씬 때리다.
22. 일곱 대머리는 모뜨고르를 죽이려고, 그를 포박해 초원의 나무 꼭대기에 묶어놓다.
23. 일곱 대머리는 모뜨고르를 태워 죽이려고 소똥을 주우러 가다.
24. 그때 멋지게 차려 입은 눈병 난 노인이 와서 모뜨고르에게 왜 그렇게 있냐고 묻다.
25. 모뜨고르는 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고 하다.
26. 노인이 자신도 눈병을 고치고 싶다고 하다.
27. 모뜨고르는 노인을 나무 위에 묶어 놓고, 자신은 노인의 말을 타고 달아나다.
28. 돌아온 일곱 대머리는 노인을 모뜨고르로 알고 태워버리다.
29. 일곱 대머리는 집으로 와서 모뜨고르를 보고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다.
30. 모뜨고르는 용왕에게 가서 여러 가지 선물을 받아왔다고 하면서, 일곱 대머리에게도 빨리 용왕에게 가자고 권하다.
31. 일곱 대머리가 용왕이 어디 있냐고 묻자, 모뜨고르는 그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가다.
32. 모뜨고르는 일곱 대머리를 속여 바다 속에 빠뜨리고, 그들의 재산을 차지하여 행복하게 살다.

어리석은 대머리 일곱 명이 피 많은 모뜨고르를 괴롭히고, 모뜨고르는 일곱 대머리를 더 많이 괴롭히고 속인다. 일곱 대머리가 모뜨고르의 집을 불태우자, 모뜨고르는 불탄 집의 재를 이용해 금과 은을 얻는다. 일곱

대머리는 그것을 따라하다가 자신들의 집을 불태우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한다. 이번에는 일곱 대머리가 모뜨고르의 암소를 죽인다. 모뜨고르는 소 피를 이용해 낙타 7마리를 얻는다. 일곱 대머리는 그것을 따라하다가 자신들의 암소를 죽이고, 사람들에게 봉변을 당한다. 다시 일곱 대머리는 모뜨고르의 아내를 죽인다. 모뜨고르는 아내의 시체로 왕궁의 아름다운 여인을 얻는다. 일곱 대머리들은 그것을 따라하다가 자신들의 아내를 죽이고, 사람들에게 젖은 나무가 불이 날 때까지 얻어맞는다. 이에 화가 난 일곱 대머리들이 모뜨고르를 나무에 묶어 태워 죽이려고 한다. 일곱 대머리들이 연료인 소똥을 주우러 간 사이에, 모뜨고르는 마침 지나가는 눈병 난 노인을 속여 자기 대신 나무에 묶어 놓는다. 일곱 대머리는 멧진 노인을 모뜨고르로 알고 태워버린다. 집으로 돌아온 일곱 대머리는 모뜨고르를 보고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자, 모뜨고르는 용왕에게 가서 선물을 받아왔다고 한다. 일곱 대머리들은 모뜨고르의 속임수에 빠져 바다 속으로 들어가고,²²⁾ 모뜨고르는 그들의 재산을 차지하여 행복하게 산다.

4.2 <대머리 일곱 명과 모뜨고르>에 나타난 화소 고찰

<대머리 일곱 명과 모뜨고르>에 나타나는 주요 화소는 크게 6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대머리 일곱 명이 모뜨고르를 괴롭히는 화소이다. 일곱 대머리는 모뜨고르의 집을 불태우고, 암소를 죽이고, 마침내 모뜨고르의 아내마저 죽인다. 이를 각각 ‘가해자가 피쟁이의 집을 불태우기’, ‘가해자가 피쟁이의 암소 죽이기’, ‘가해자가 피쟁이의 아내 죽이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가해자가 피쟁이를 괴롭히는 공

22) 몽골에는 바다가 없다. 그래서 ‘바다’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건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몽골인은 바다만큼 넓은 ‘호수’를 ‘바다’로 부르고 있다. 몽골 북서쪽 러시아와 접경지에 있는 해발 고도 1,645m, 면적 2,760km², 둘레 380km의 흡스굴(Khovsgol) 호수를, 몽골인들은 ‘어머니의 바다[달라이 예치]’라고 부른다고 한다. 신현덕, 『몽골』, 휘슬러, 2005, 232쪽.

통점이 있으므로, 이를 ‘가해자가 피쟁이 괴롭히기’ 화소라고 하겠다.

둘째는 모뜨고르가 대머리 일곱 명을 속이는 화소이다. 일곱 대머리가 생계의 집을 불태우자, 생계는 불탄 집의 재를 금과 은으로 바꾼다. 일곱 대머리는 모뜨고르의 속임수를 흉내내다가 멸시를 당한다. 일곱 대머리가 생계의 암소를 죽이자, 생계는 암소의 피를 이용해 낙타 7마리를 얻는다. 일곱 대머리는 모뜨고르를 따라하다가 봉변을 당한다. 일곱 대머리가 생계의 아내를 죽이자, 생계는 아내의 시체를 이용해 왕궁의 아름다운 여인을 얻는다. 일곱 대머리는 모뜨고르를 모방하다가 사람들에게 마른 나무가 부러질 때까지 얻어맞는다.²³⁾ 이를 각각 ‘피쟁이가 재를 금과 은으로 바꾸기’, ‘피쟁이가 소 피를 낙타로 바꾸기’, ‘피쟁이가 죽은 아내로 왕궁의 여인 얻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피쟁이가 가해자를 속이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이를 ‘(피쟁이가) 가해자 속이기’ 화소라고 하겠다.

셋째는 모뜨고르가 나무에 묶여 매달리는 화소이다. 모뜨고르에게 여러 번 속임을 당한 일곱 대머리는 모뜨고르를 나무에 매달아 태워 죽이려고 한다. 모뜨고르는 포박되어 인적 없는 초원의 나무 꼭대기에 묶이게 된다. 이를 ‘(피쟁이가) 속박되어 나무에 매달리기’ 화소라고 할 수 있다.

넷째는 모뜨고르가 나무에서 탈출하는 화소이다. 나무에 매달린 모뜨고르 앞으로 눈병 난 멋진 노인이 지나가자, 모뜨고르는 눈병을 치료하기 위해 나무에 매달려 있다고 한다. 그러자 멋지게 차려 입은 노인은 자신도 눈병이 있으니 고치고 싶다고 한다. 모뜨고르는 노인을 나무 위에 묶어 놓고, 자신은 노인의 말을 타고 달아난다. 이를 ‘(피쟁이가) 제3자를 이용해 나무에서 탈출하기’ 화소라고 할 수 있다.

23) ‘축축해진 나무가 일그러지도록, 마른 나뭇가지가 부숴지도록 때리고’라는 표현은 ‘때리다’라는 동사를 강조하는 말이다. 이는 몽골어에서 관용적이면서 대단히 널리 쓰이는 표현이고, 구술적 측면과 아울러 전승적 기법이 강조된 특유의 문법이라고 한다. 장장식, 『몽골민속기행』, 자우출판사, 2002, 332쪽.

다섯째는 집으로 돌아온 모뜨고르가 일곱 대머리에게 자신은 용궁에 다녀왔다고 속이는 화소이다. 노인을 모뜨고르로 알고 태워 죽였던 일곱 대머리들은, 잘 차려입고 다시 나타난 모뜨고르를 보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는다. 그러자 모뜨고르는 용왕에게 가서 여러 가지 선물을 받아왔다고 일곱 대머리를 속인다. 이를 ‘(피쟁이가) 비현실계(용궁)로 가해자 속이기’ 화소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는 모뜨고르가 대머리 일곱 명을 바다에 빠뜨리고 그들의 재산을 차지하는 화소이다. 모뜨고르는 자신이 용왕에게서 선물을 받았다고 일곱 대머리를 속이고, 용왕이 어디 있냐고 묻는 그들을 바다로 데리고 가서 모두 빠뜨린다. 그리고 일곱 대머리의 재산을 차지하여 행복하게 살아간다. 이를 ‘(피쟁이의) 가해자 살해와 가해자의 재산 차지하기’ 화소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핀 화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가해자가 피쟁이 괴롭히기
 - 1.1 집 불태우기
 - 1.2 암소 죽이기
 - 1.3 아내 죽이기
2. 가해자 속이기
 - 2.1 재를 금과 은으로 바꾸기
 - 2.2 소 피를 낙타로 바꾸기
 - 2.3 죽은 아내로 왕궁의 여인 얻기
3. 속박되어 나무에 매달리기
4. 제3자를 이용해 나무에서 탈출하기
5. 비현실계(용궁)로 가해자 속이기
6. 가해자 살해와 가해자의 재산 차지하기

Ⅲ. <외쪽의 피>와 몽골 설화의 화소 분석

위에서 살핀 <외쪽의 피>와 몽골 설화 <사냥을 해서 공을 세우다>, <서낭나무에 묶여 고질병을 고치다>, <대머리 일곱 명과 모뜨고르>에 나타난 화소를 간단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說話	<외쪽의 피>	<사냥을 해서 공을 세우다>	<서낭나무에 묶여 고질병을 고치다>	<대머리 일곱 명과 모뜨고르>
話素	1. 가해자 속이기 1.1 가해자의 말 팔기 1.2 가해자의 음식 먹기 1.3 자신에게 불리한 글 내용 바꾸기	1. 가해자 속이기 1.1 보배로 가해자 현혹하기 1.2 썩을 냄새나게 굽기 1.3. 자신에게 불리한 글 내용 바꾸기	1. 가해자 속이기	1. 가해자가 피쟁이 괴롭히기 1.1 집 불태우기 1.2 암소 죽이기 1.3 아내 죽이기 2. 가해자 속이기 2.1 재를 금과 은으로 바꾸기 2.2 소 피를 낙타로 바꾸기 2.3 죽은 아내로 왕궁의 여인 얻기
	2. 속박되어 나무에 매달리기		2. 속박되어 나무에 매달리기	3. 속박되어 나무에 매달리기
	3. 제3자를 이용해 나무에서 탈출하기		3. 제3자를 이용해 나무에서 탈출하기	4. 제3자를 이용해 나무에서 탈출하기
	4. 비현실계(용궁)로 가해자 속이기		4. 비현실계(염라대왕)로 가해자 속이기	5. 비현실계(용궁)로 가해자 속이기
	5. 가해자 살해와 가해자의 딸 차지하기	2. 가해자의 재산 차지하기	5. 가해자의 아내 차지하기	6. 가해자 살해와 가해자의 재산 차지하기

* 진한 글씨체 부분이 서로 비슷한 화소임.

<외쪽의 피>에 나타난 화소는 5~7개이다. ‘가해자 속이기’를 하나의

화소로 보면 5개이고, ‘가해자 속이기’ 화소를 세분하면 7개이다. <외쪽의 껍> 화소 7개 중에서 5개의 화소가 몽골 설화에 나타난다.

우선 ‘가해자 속이기’ 화소는 몽골의 3편 설화에 모두 나타난다. 하지만 <외쪽의 껍>에 나타난 ‘가해자 속이기’ 화소 중 ‘가해자의 말 팔기’와 ‘가해자의 음식 먹기’는 몽골 설화에 나타나지 않는다.²⁴⁾ ‘자신에게 불리한 글 내용 바꾸기’는 몽골 설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 <외쪽의 껍>에 나타난 ‘자신에게 불리한 글 내용 바꾸기’ 화소는 몽골 설화의 <사냥을 해서 공을 세우다>에 보인다. <외쪽의 껍>에서 외쪽이는 자신의 등에 씌어진 불리한 내용의 글을 학동(學童)을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바꾼다. <사냥을 해서 공을 세우다>에서 빠라견창 역시 자신의 등에 씌어진 불리한 내용의 글을 목인(牧人)을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바꾼다.

주인공에게 불리한 글 내용을 유리한 내용으로 바꾸어 주는 인물은 한국과 몽골에서 차이가 난다. 한국 설화에서는 학동(學童)이 글 내용을 바꾸고, 몽골 설화에서는 목인(牧人)이 글 내용을 바꾼다. 학동과 목인은 차이는 한국과 몽골의 생활과 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²⁵⁾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문(文)을 숭상했기에, 학문(學文)하는 학동(學童)이 변화의 요소로 등장할 수 있다. 반면에 몽골에서는 전통적으로 유목(遊牧)으로 살아왔기에, 방목(放牧)하는 목인(牧人)이 변화의 요소로 등장할 수 있다. 몽골의 유목 생활은 나그네나 손님에 대한 환대의 전통이 강하다.²⁶⁾ 즉, 목인, 나그네, 손님 등 외부인은 외부 소식과 새로운 문물을 전

24) 이는 논자가 살핀 몽골 설화 자료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차후에 이러한 화소가 몽골 설화에서 찾아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25) 설화는 떠돌다가 새로운 환경에 알맞게, 낯선 것을 친숙한 것으로 바꾼다.(As a tale wanders it adapts itself to its new environment: unfamiliar customs or objects may be replaced by familiar. Stith Thompson, *The Folktale*, Dryden Press, 1946, 436쪽.) 우리는 학동이 친숙하고, 몽골은 목인이 친숙하다.

26) D.마이달/N.츄르템 著, 김구산 譯, 『몽고문화사』, 동문선, 1991, 158쪽.

해주는 역할을 해서,²⁷⁾ 유목민들에게 변화의 선구자로 환영받았던 것이다.

‘등에 글을 쓰다. 등에 불리한 내용의 글을 쓰다. 등에 씌어진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제3자를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글로 바꾸다.’라는 화소는 두 이야기에서 거의 일치한다. 이러한 화소는 다른 이야기에서는 찾을 수 없는 독특한 화소이다. 이렇게 독특한 화소가 두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두 이야기가 친연성(親聯性, affinity)²⁸⁾을 띠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글 내용을 바꾸는 인물이 한국은 학동(學童)으로, 몽골은 목인(牧人)으로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외쪽의 피>에 나타난 ‘속박되어 나무에 매달리기’ 화소는 몽골 설화의 <서낭나무에 묶여 고질병을 고치다>와 <대머리 일곱 명과 모뜨고르>에 나타난다. <외쪽의 피>에서 외쪽이는 주인 양반의 노여움 때문에, 묶인 채로 상자에 넣어져 버드나무 가지에 매달린다. <서낭나무에 묶여 고질병을 고치다>에서 생계는 달라이 왕의 노여움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묶인 채로 서낭나무에 매달린다. <대머리 일곱 명과 모뜨고르>에서 모뜨고르는 대머리 일곱 명의 노여움 때문에, 묶인 채로 나무 꼭대기에 매달린다.

주인공이 나무에 매달린다는 화소는 공통되지만, 매달리는 나무인 버드나무와 서낭나무는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우에 외쪽이는 버드나무에

27) 신현덕, 『몽골』, 휘슬러, 2005, 85쪽.

28) 여기서 ‘친연성(親聯性, affinity)’이라는 말은 ‘밀접한 관련성’이란 뜻으로 사용하는데, 이전의 저술에서는 보이지 않고 본고에서 처음으로 규정되는 용어이다. 국어사전에는 친연성(親緣性: 친척으로 맺어진 인연과 같은 성질)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본고에서는 ‘親緣性’이 아니라 ‘親聯性’이란 용어를 쓰기로 한다. 한국과 몽골의 설화는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 같은 줄기에서 분파된 ‘친척과 같은 성질’을 보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차후의 연구에서, 한국과 몽골의 설화가 계통적으로 비슷한 줄기에서 분파된 것이 증명된다면, 그때 ‘親緣性’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매달리고, 몽골의 경우에 생계는 서낭나무에 매달린다.²⁹⁾ <외쪽의 피>에 나타나는 버드나무는 죽음과 그렇게 깊은 관련이 없지만,³⁰⁾ <서낭나무에 묶여 고질병을 고치다>에 나타나는 서낭나무는 죽음과 깊은 관련이 있다. 서낭나무는 무당나무라고도 하는데, 몽골에서는 아릅드리 나무가 어느 특정 부위에 줄기가 무성한가에 따라 달리 부른다. 상단이 무성하면 ‘하늘의 무당나무’, 중단이 무성하면 ‘이승의 무당나무’, 하단이 무성하면 ‘저승의 무당나무’라고 부른다. 그 중에서 아랫부분의 줄기가 무성한 나무를 ‘저승의 무당나무’라고 부르는데, 죽음과 암흑의 세계인 하계를 관장하는 나무라고 한다.³¹⁾ 몽골의 설화 <서낭나무에 묶여 고질병을 고치다>에서 피쟁이 생계가 매달리는 서낭나무는, 죽음과 암흑을 관장하는 저승의 무당나무로 볼 수 있다. 또한 몽골에서는 관(棺)을 쓰지 않고 보통 때 입던 옷에 흰 무명 천을 감아서 시체를 나무 위에 수장(樹葬)하는 풍습도 있었다고 한다.³²⁾ 주인공이 매달린 나무를 죽음을 예비한 나무로 본다면, 몽골의 나무가 한국의 나무보다 인과성이 강한 소재라고 할 수 있다.

‘가해자의 노여움 때문에 주인공이 묶인 채로 나무에 매달리다.’라는 화소는 세 이야기에서 거의 일치한다. 이러한 화소는 다른 이야기에서는 찾기 어려운 독특한 화소이다. 이렇게 독특한 화소가 세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세 이야기가 친연성이 있다는 근거로 삼을

29) <대머리 일곱 명과 모뜨고르>에서 모뜨고르는 ‘인적 없는 초원의 나무 꼭대기’에 매달린다. 몽골에서는 초원에 외톨이로 서 있는 나무도 신령한 나무로 여겨진다.(장장식, 『몽골민속기행』, 자우출판사, 2002, 16쪽.) 따라서 모뜨고르가 매달리는 나무도 보통 나무가 아니라, 일종의 서낭나무(무당나무)로 볼 수 있다.

30) 한국의 경우에도, 물가의 수양버들은 상(喪)을 당한 여인을 연상시킨다고 한다.(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1992, 332쪽.) 하지만 이는 버드나무의 특수한 경우이고, 한국의 다른 ‘피쟁이 하인’ 설화에서 ‘버드나무’는 중요한 소재로 등장하지 않는다. 피쟁이가 매달리는 나무는 정자나무, 대추나무, 미루나무, 큰 나무, 높은 나무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31) 장장식, 『몽골민속기행』, 자우출판사, 2002, 23-27쪽.

32) 김광언 외, 『바람의 고향, 초원의 말발굽』, 조선일보사 출판국, 1993, 294쪽.

수 있다. 그리고 주인공이 매달리는 나무를 죽음을 예비한 소재로 본다면, 몽골의 서낭나무가 한국의 버드나무보다 인과성이 더 강한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외쪽의 피>에 나타난 ‘제3자를 이용해 나무에서 탈출하기’ 화소는 몽골 설화의 <서낭나무에 묶여 고질병을 고치다>와 <대머리 일곱 명과 모뜨고르>에 나타난다. <외쪽의 피>에서 주인 양반의 노여움 때문에 나무에 매달린 외쪽이는, 자기 앞을 지나가는 눈병 앓는 잔질개 할멈을 이용해 묶여진 나무에서 탈출한다. <서낭나무에 묶여 고질병을 고치다>에서 달라이 왕의 노여움 때문에 나무에 매달린 생계는, 자기 앞을 지나가는 허리 병 앓는 바트몽크를 이용해 묶여진 나무에서 탈출한다. <대머리 일곱 명과 모뜨고르>에서 일곱 대머리의 노여움 때문에 나무에 매달린 모뜨고르는, 자기 앞을 지나가는 눈병 앓는 노인을 이용해 묶여진 나무에서 탈출한다.

피쟁이가 ‘제3자를 이용해 나무에서 탈출하기’ 화소는, 제3자의 신분과 제3자를 속이는 수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제3자’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에 제3자는 평민인데, 몽골의 경우에 제3자는 부자이거나 신분이 높은 인물이다. 그래서 한국 <외쪽의 피>에서는 외쪽이가 평범한 인물을 대신 죽게 하는 사건은 인과성이 부족하다. 하지만 몽골의 설화에서 피쟁이가 부자 또는 높은 신분의 인물을 대신 죽게 하는 사건은 인과성을 획득하고 있다. ‘피쟁이 하인’ 유형의 설화에서 부자 또는 높은 신분의 인물은 암묵적인 가해자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제3자를 속이는 ‘수단’은 한국과 몽골 모두 눈병으로 동일하다. <외쪽의 피>를 비롯해 한국의 많은 ‘피쟁이 하인’ 설화에서도 제3자를 속이는 수단은 눈병이 가장 많다. 이 경우에도 몽골의 눈병이 한국의 눈병에 비해 인과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초원에서 방목, 사냥, 활쏘기 등으로 살아가는 몽골 사람들에게 시력은 아주 중요했다.³³⁾ 그래서 농경으로 살아가는 한국

33) D.마이달·N.츄르템 著, 김구산 譯, 『몽고문화사』, 동문선, 1991, 176쪽.

사람들보다, 초원에서 살아가는 몽골 사람들의 눈병이 생존에 훨씬 치명적이다. 생존에 치명적인 눈병을 고쳐준다고 하니, 누구라도 쉽게 속을 수 있고, 이야기에서도 인과성이 강하게 느껴진다.

‘주인공이 제3자를 이용하여 나무에서 탈출하다’라는 화소는 세 이야기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화소는 다른 이야기에서는 찾기 어려운 특수한 화소이다. 이렇게 특수한 화소가 세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세 이야기가 친연성이 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 비해, 몽골의 화소가 더 인과성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외쪽의 피>에 나타난 ‘비현실계로 가해자 속이기’ 화소는 몽골 설화의 <서낭나무에 묶여 고질병을 고치다>와 <대머리 일곱 명과 모뜨고르>에 나타난다. <외쪽의 피>에서 외쪽이는, 자신을 죽였다고 생각하는 주인 양반 앞에 다시 나타나서, 용궁에 가면 많은 보물을 얻을 수 있다고 주인 양반을 속인다. <서낭나무에 묶여 고질병을 고치다>에서 쟁계는, 자신을 죽였다고 생각하는 달라이 왕 앞에 다시 나타나서, 염라대왕이 자신에게 왕의 아내를 취하라고 했다고 달라이 왕을 속인다. <대머리 일곱 명과 모뜨고르>에서 모뜨고르는, 자신을 죽였다고 생각하는 대머리 일곱 명 앞에 다시 나타나서, 용궁에 가면 많은 선물을 얻을 수 있다고 일곱 대머리를 속인다.

죽었다고 여겨진 피쟁이가 가해자 앞에 다시 나타나서 말한 염라대왕, 용궁 등의 비현실계는 사후 세계로 볼 수 있다. 사후 세계라는 결과는 염라대왕, 용궁 등으로 비슷하지만, 사후 세계에 이르는 원인 행위는 한국과 몽골에서 달리 나타난다. 한국의 피쟁이가 외쪽이는 강물에 던져진 후에 용궁에 다녀왔다고 한다. 반면에 몽골의 피쟁이가 쟁계와 모뜨고르는 불에 태워진 후에 염라대왕 또는 용궁에 다녀왔다고 한다. 한국은 익사 후 용궁에 이르는 구성이고, 몽골은 불에 타서 죽은[燒死] 후 염라대왕 또는 용궁에 이르는 구성이다. 익사(溺死)와 소사(燒死)는 문화적인 차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단 ‘물에 빠져 죽는다’는 것은 물을 부정적 상징으로 보는 경우이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 물의 부정적 상징은 죽음, 변덕, 역경, 조급함 등으로 나타난다.³⁴⁾ 그런데 몽골의 문화에서는 물의 부정적 상징을 찾기 어렵다. 몽골은 유목 사회였기에,³⁵⁾ 강수량이 적어 물이 귀해서³⁶⁾ ‘신성한 물’이라는 상징이 강하다.³⁷⁾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물에 무엇인가를 빠뜨리거나 담그는 행위는 꿈도 꾸지 못할 불경으로 치부되었다.³⁸⁾ 이러한 물에 대한 신성성 및 금기는 오래된 몽골법 기록인 대야사(Great yassa)에서도 찾을 수 있다.³⁹⁾ 칭기즈칸은 이 법에서 물에 방뇨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물에 손을 담그는 것을 금하고 반드시 그릇으로 떠야 한다고 명하고 있다. 따라서 ‘익사(溺死)’라는 부정적 행위는 이야기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대머리 일곱 명과 모뜨고르>에서도 불로 부정적 대상인 모뜨고르를 태우려고 하는데, 이때 불은 재난과 귀신을 쫓고 부정을 제거하는 성물로 간주된다.⁴⁰⁾ 이처럼 ‘물’의 부정성과 신성성이라는 문화적인 차이가 반영된 까닭에, 죽음의 원인 행위가 각각 달리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물로 인한 죽음으로[溺死], 몽골에서는 물과 대비되는 불로 인한 죽음으로[燒死] 형상화된 것이다. 용궁이라는 비현실계의 결과도 비슷해도, 그에 이르는 원인은 한국과 몽골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주인공이 비현실계로 가해자를 속이다’라는 화소는 세 이야기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화소는 다른 이야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34)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1992, 287쪽.

35) 김광언 외, 『바람의 고향, 초원의 말발굽』, 조선일보사 출판국, 1993, 36쪽.

36) 김정배 외, 『몽골의 암각화』, 열화당, 1988, 22쪽.

37) 이는 몽골 신화에서도 확인된다. 몽골 신화에서 물과 강은 에메테이 보르항[女神의 눈물이라고 한다.(체렌소드놈 지음, 이평래 옮김, 『몽골 민간 신화』, 대원사, 2001, 29쪽.)

38) 장장식, 『몽골민속기행』, 자우출판사, 2002, 19쪽.

39) 라자노프스키 저, 서병국 역, 『몽골의 관습과 법』, 한국학술정보, 2005, 43쪽, 119-121쪽.

40) 박원길, 『몽골의 문화와 자연지리』, 민속원, 1999, 195쪽.

독특한 화소이다. 이렇게 독특한 화소가 세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보인다는 것에서, 우리는 세 이야기가 깊은 친연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현실계의 결과는 염라대왕 또는 용궁 등으로 비슷해도,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원인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외쪽의 피>에 나타난 ‘가해자 살해와 가해자의 딸 차지하기’ 화소는 몽골 설화의 <사냥을 해서 공을 세우다>, <서낭나무에 묶여 고질병을 고치다>, <대머리 일곱 명과 모뜨고르> 등에 나타난다. <외쪽의 피>에서 외쪽이는, 자신을 괴롭히던 주인 양반과 가족을 익사시키고 그의 딸과 부부가 된다. <사냥을 해서 공을 세우다>에서 빠라견창은, 자신을 괴롭히던 노이얀을 속이고 그 부인에게서 말 2마리와 많은 은화를 얻는다. <서낭나무에 묶여 고질병을 고치다>에서 생계는, 자신을 괴롭히던 달라이 왕을 속여서 그의 작은 부인을 차지한다. <대머리 일곱 명과 모뜨고르>에서 모뜨고르는, 자신을 괴롭히던 일곱 대머리들을 익사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차지한다.⁴¹⁾

주인공이 가해자에게서 차지하는 것이 딸, 작은 부인, 재산 등으로 약간 다르지만, 주인공이 가해자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낸다는 것을 공통점으로 볼 수 있다. 외쪽이는 주인 양반에게서 딸을 얻고, 빠라견창은 노이얀의 부인에게서 말과 은화를 얻고, 생계는 달라이 왕에게서 그의 작은 부인을 얻고, 모뜨고르는 일곱 대머리들에게서 재산을 얻는다. 그리고 몽골 <서낭나무에 묶여 고질병을 고치다>에서, 생계가 달라이 왕의 작은 부인을 차지하는 것도 넓게 보면 재산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생계가 차지한 작은 부인은 달라이 왕의 남아도는 아내들 가운데

41) 모뜨고르가 일곱 대머리들을 익사시키는 사건을 ‘자연 그대로의 물’에 무엇을 담그는 행위로 보아, 물의 신성성을 해치는 불경스러운 행위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일곱 대머리가 빠지는 물은 ‘자연 그대로의 물’이 아니라 바닷물이다. ‘자연 그대로의 물’은 강물이나 마실 수 있는 물을 말한다. 따라서 일곱 대머리가 빠지는 바다는 ‘자연 그대로의 물’이 아니기에, 물의 신성성을 해치는 불경스러운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하나였다. 그리고 작은 부인을 잃은 달라이 왕도 별다른 반응이 없다. 달라이 왕은 사람을 잃었다기보다는, 풍부한 것 중에서 하나를 잃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달라이 왕의 작은 부인은 달라이 왕의 많은 재산 가운데 남아도는 하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부다처인 달라이 왕에게, 부인은 하나의 경제적인 재산으로 간주된다고 할 수 있다.⁴²⁾

‘주인공이 가해자를 살해하고 가해자의 딸을 차지하다’라는 화소는 네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화소는 다른 유형의 이야기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위의 이야기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화소이다. 이렇게 독특한 화소가 네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네 이야기의 친연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몽골의 경우에, 피쟁이가 가해자의 작은 부인을 차지하는 것도, 넓게 보아 재산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고찰에서 한국 설화 <외쪽의 피> 화소 중 많은 부분이 몽골 설화에도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양국 설화 사이에는 친연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도 아울러 살필 수 있었다. 이러한 화소의 친연성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화소 존재의 친연성’과 ‘화소 배열의 친연성’이다.

<외쪽의 피> 화소는 ‘가해자의 말 팔기, 가해자의 음식 먹기, 자신에게 불리한 글 내용 바꾸기, 속박되어 나무에 매달리기, 제3자를 이용해 나무에서 탈출하기, 비현실계로 가해자 속이기, 가해자 살해와 가해자의 딸 차지하기’ 등 모두 7개였다. 이 중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글 내용 바꾸기, 속박되어 나무에 매달리기, 제3자를 이용해 나무에서 탈출하기, 비현실계로 가해자 속이기, 가해자 살해와 가해자의 딸 차지하기’ 5개의 화소가 몽골 설화 <사냥을 해서 공을 세우다>, <서낭나무에 묶여 고질 병을 고치다>, <대머리 일곱 명과 모뜨고르>에서 확인되었다. <외쪽의

42) 한상복 외, 『문화인류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142쪽.

피>에 나타나는 화소들이 몽골 설화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또는 비슷한 내용으로 나타났다. 이를 ‘화소 존재의 친연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몽골 설화 <대머리 일곱 명과 모뜨고르>는 후반부의 화소 및 사건 전개가 한국 설화 <외쪽의 피>와 아주 유사했다. <외쪽의 피>에서 외쪽이는 나무에 묶이고, 지나가는 눈병 앓는 사람을 자기 대신 나무에 매달리게 하고, 다시 살아나 가해자 앞에 나타나서 용궁에 다녀왔다고 하고, 가해자도 용궁에 가면 많은 보물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가해자를 물에 빠뜨리고, 가해자의 딸을 차지한다. 이러한 <외쪽의 피>의 후반부 사건 전개는 몽골 설화 <대머리 일곱 명과 모뜨고르>와 거의 비슷해서 주인공의 이름만 바꾸면 사건 전개가 거의 똑같다. 이는 동일한 의미의 행위를 다양한 인물들에게 부여할 수 있다는 민담의 특성과도 통한다.⁴³⁾ 즉, 외쪽이라는 주인공 대신 모뜨고르를 주인공으로 설정해도 사건 전개가 거의 비슷하다. 모뜨고르는 나무에 묶이고, 지나가는 눈병 앓는 사람을 자기 대신 나무에 매달리게 하고, 다시 살아나 가해자 앞에 나타난 모뜨고르는 용궁에 다녀왔다고 하고, 가해자도 용궁에 가면 많은 보물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서 가해자를 물에 빠뜨리고, 가해자의 재산을 차지한다. 이처럼 <외쪽의 피>에 나타나는 화소들이 몽골 설화에서도 비슷한 배열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화소 배열의 친연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V. <외쪽의 피>와 몽골 설화의 화소 친연성(親聯性)의 의미

한국의 ‘피쟁이 하인’ 설화 <외쪽의 피>와 몽골의 ‘피쟁이 하인’ 설화 <사냥을 해서 공을 세우다>, <서낭나무에 묶여 고질병을 고치다>, <대

43) 블라디미르 프롭 지음, 황인덕 옮김, 『민담형태론』, 예림기획, 1998, 52쪽.

머리 일곱 명과 모뜨고르>는 서로 비슷한 화소를 공유하고 있음을 위의 고찰에서 살펴보았다. 화소의 공유는 ‘화소 존재의 친연성’과 ‘화소 배열의 친연성’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이러한 화소 존재의 친연성과 화소 배열의 친연성이 구비문학의 전승과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화소 존재의 친연성과 화소 배열의 친연성에서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의미는, 한국과 몽골의 ‘피쟁이 하인’ 설화는 전파에 의해 생성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⁴⁴⁾ <외쪽의 피>에 나타난 화소 ‘자신에게 불리한 글 내용 바꾸기, 속박되어 나무에 매달리기, 제3자를 이용해 나무에서 탈출하기, 비현실계로 가해자 속이기, 가해자 살해와 가해자의 딸 차지하기’ 등은, 몽골의 ‘피쟁이 하인’ 유형 설화에서도 나타나는 화소이다. 어떤 화소가 우연히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든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다.⁴⁵⁾ 따라서 어떤 두 이야기의 화소가 유사하다고 해서, 한 쪽의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전파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런데 두 이야기의 화소가 비슷하면서 그 배열도 비슷할 경우는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났다가보다는, 어떤 이야기가 어느 쪽으로 전파되었다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화소는 비슷한 내용이 시간과 지역을 초월해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비슷한 화소의 배열 또는 나열이 유사하다면, 이는 두 이야기가 독자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형의 이야기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⁴⁶⁾ 한국의 <외쪽의 피>와 몽골의 <대머리 일곱 명과 모뜨고르>는 화소가 비슷하면서 그 배열도 비슷했다. 따라서 두 이야기

44) ‘설화의 전파’에 대한 연구는 일찍이 최남선(1890~1957), 손진태(1900~1950)에서 시작되었다. ① 최남선, 『육당 최남선 전집』 5, 현암사, 1973, 46~57쪽, 94~121쪽. ② 손진태, 『한국 민족설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82, 1~212쪽.)

45) 김열규 외, 『민담學概論』, 일조각, 1982, 78쪽.

46) 김화경, 『한국의 설화』, 지식산업사, 2002, 183쪽. 김화경은 신화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다. 여러 모티프들의 특징적인 계기 내지는 결합이 두 지역 신화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둘 사이의 발생적 관련이 증명된다고 본다.

는 다원발생보다는 전파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소 존재의 친연성과 화소 배열의 친연성에서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의미는, ‘피쟁이 하인’ 유형에서 상전(上典) 살해의 화소는 몽골 설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설화에서도 상전 살해의 화소는 나타나기에, 반드시 몽골 설화가 우리 설화로 전파되었다는 가정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즉, 우리 설화가 몽골 설화로 전파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전파의 선후가 문제인데, 전파론에서 이야기의 본원성⁴⁷⁾을 결정하는 기준의 하나로 ‘일관성 있는 이야기’가 있다.⁴⁸⁾ 어떤 두 이야기가 각각 다른 지역에 존재할 경우에, 줄거리나 사건의 진행이 일관적인 이야기가 더 원형적인 이야기라는 것이다. 이는 본래의 이야기가 더 자연스러운 특징을 보인다는 주장과도 통한다.⁴⁹⁾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외쪽의 피>의 결론 부분은 사건 전개상 비약이 심하고, 독자들이 그 결말이나 주제를 받아들이기에도 불편한 내용이 었다. 즉, 사건 진행도 어색하고 정서적 공감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야기였다. 이는 신연우의 지적대로, 상전의 가족을 모두 죽이는 하인의 폭거는 설화만으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⁵⁰⁾ 하지만 몽골의 경우에는, 상전 또는 가해자가 주인공에게 너무도 많은 박해를 가했기에, 주인공이 가해자를 죽이는 것이 사건 전개상 어색하지 않고, 독자들도 결말이나 주제의 인과적 당위성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였다. 한국 <외쪽의 피>에서는 가해자인 주인 양반의 잘못이 그를 죽일 정도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몽골 <대머리 일곱 명과 모뜨고르>에서 가해자

47) 어떤 전파된 이야기가 있을 경우, 전파되기 전의 원래 이야기 특성을 말함.

48) 카트린 피게-알더(Kathrin Pöge-Alder) 지음, 이문기 옮김, 『민담, 그 이론과 해석』, 유로서적, 2009, 161쪽.

49) 김열규 외, 『民談學概論』, 일조각, 1982, 102쪽.

50) 신연우, 『‘상전 속인 하인’ 설화의 사회성과 신화성』, 한국민속학회, 『한국민속학』 제37집, 2003, 123쪽.

인 일곱 대머리는 주인공의 집을 불태우고, 암소를 죽이고, 아내를 죽인다. 그래서 피해자인 주인공이 가해자인 일곱 대머리를 죽이더라도, 이야기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⁵¹⁾ 따라서 일관성 있는 이야기인⁵²⁾ 몽골의 <대머리 일곱 명과 모뜨고르>를 본원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한국 <외쪽의 피>의 상전 살해 화소는 몽골 <대머리 일곱 명과 모뜨고르>의 화소가 전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소 존재의 친연성과 화소 배열의 친연성에서 찾을 수 있는 세 번째 의미는, 한국 설화는 신분적 가치를 중시하고, 몽골 설화는 물질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것이다. 이야기에서 마지막 부분은 사건의 전개를 종결시키는데, 이 부분에서 이야기의 주제를 추측할 수 있다. 한국 설화 <외쪽의 피>는 ‘이와 같이 외쪽을 학대하던 주인 양반은, 도리어 외쪽의 흥계에 빠져서 온 집안 식구가 물귀신이 되어버리고, 딸까지 빼앗겼습니다.’로 끝난다.⁵³⁾ 마지막 부분이 주인 양반의 몰락과 그의 딸과 외쪽이 부부가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주인 양반의 죽음’과 ‘외쪽과 양반 딸의 혼인’이다. 외쪽이가 주인 양반의 재산을 차지했다는 부분은 찾을 수 없고, 주인 양반이 부자였다는 서술도 없다. 외쪽이는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양반을 없애고 양반의 딸과 결혼한 것으로 나온다.⁵⁴⁾

51) 앞 장의 화소 비교 분석에서 밝힌 것처럼, ‘제3자의 신분’과 ‘눈병’도 몽골의 설화가 일관성이 있다. 한국의 설화에서 제3자는 평범한 할머니(다른 각편에서는 평민 장사꾼)이어서, 그의 죽음은 억울하다는 느낌을 독자에게 준다. 하지만 몽골의 설화에서 제3자는 부자 또는 높은 신분의 인물이어서, 그의 죽음은 억울하다는 느낌이 덜하다. 왜냐하면 평민의 입장에서 부자나 높은 신분의 인물은 암묵적인 가해자이기 때문이다.(D.마이달·N.츄르템 저, 김구산 역, 『몽고문화사』, 동문선, 1991, 225쪽.) 또한 농경 사회의 눈병보다는 초원에서 방목, 사냥으로 살아가는 유목 사회의 눈병이 더 치명적이고, 사건 전개상 더 인과적이다.

52) 앞에서 살핀 바, ‘속박되어 나무에 매달리기’와 ‘제3자를 이용해 나무에서 탈출하기’도 몽골의 화소가 한국의 화소보다 인과성이 더 강하다.

53) 신원기, 『조선동화대집과 설화교육』, 보고사, 2017, 305쪽.

54) <외쪽의 피> 이후로 ‘피쟁이 하인’ 유형의 이야기에서는 하인이 양반 재산을 차지하는 각편이 많다. 하지만 이 역시 하인의 재산 차이가 중심 사건이 아니라, 하인의 신분 상승에 부수되는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 하인의 재산 차이가 나타

물론 양반은 부자라고 볼 수 있지만, 이야기 전체적인 분위기와 흐름이 양반과 하인의 대립을 나타냄으로써, 재산 보다는 신분 갈등을 더 첨예하게 드러내고 있다. 외쪽이는 양반 딸과 혼인함으로써, 자신의 자손은 대대손손 양반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노비 남성과 양반 여성이 혼인할 경우에, 그 자녀는 양반인 어미의 신분을 따르기 때문이다.⁵⁵⁾ 그래서 외쪽의 욕망 실현이 작품의 주제라면,⁵⁶⁾ 이 이야기는 외쪽의 혼인을 강조하고 신분적 가치의 상승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⁵⁷⁾

나는 각편은 ① <주인집을 망하게 한 하인>(3편), <주인을 망하게 한 종>(입석재, 『韓國口傳說話』 3, 평민사, 1988, 126-137쪽.), ② <上典집을 망하게 한 종>(입석재, 『韓國口傳說話』 6, 평민사, 1990, 134-137쪽.), ③ <막둥이>(입석재, 『韓國口傳說話』 8, 평민사, 1991, 60-64쪽.), ④ <方학준>(입석재, 『韓國口傳說話』 12, 평민사, 1993, 45-48쪽.), ⑤ <상전을 육보인 하인 ‘떠거리’>(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7-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1016-1021쪽.), ⑥ <피쟁이 하인이 사기 행각>(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2-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311-316쪽.), ⑦ <피 많은 하인>(1), (2)(한국학중앙연구원,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2-15, 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74-78쪽, 84-88쪽.), ⑧ <피쟁이 하인>(한국학중앙연구원,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2-16, 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345-351쪽.) 등이 있다.

55) 한국사연구회 편,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 上, 지식산업사, 2017, 463-464쪽. 1731년 시행한 노비종모법(奴婢從母法). 노비와 양민이 혼인할 경우, 그 소생 자녀는 모(母)의 신분을 따르도록 한다.

56) 어떤 작품의 주제는 주인공의 욕망 실현으로 볼 수 있다. 주인공은 가장 많은 명제들에 의해 언급되는 인물이며(제랄드 프랭스 著, 최상규 譯, 『서사학』, 문학과지성사, 1988, 114쪽.), 관심의 주된 초점이 되는 인물이며(제랄드 프린스 지음, 이기우·김용재 옮김, 『서사론사전』, 민지사, 1992, 214쪽.), 작품 속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기에(박혜숙, 『소설의 등장인물』,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8쪽.), 욕망 그 자체라고(최시한, 『소설의 해석과 교육』, 문학과지성사, 2005, 175쪽.) 할 수 있다.

57) 한국 설화에서 신분적 가치를 중시했다는 것은 후대의 전승 과정에서도 확인된다. 대표적인 ‘피쟁이’ 설화인 <방학중> 이야기에서도 억압자인 양반에 저항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조동일,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 영남대학교 출판부, 1979, 258-270쪽.) 그리고 ‘피쟁이 하인’ 설화를 소설화한 애국계몽기의 작품 <어복손전(魚福孫傳)>은 하인 어복손의 속량과 신분 상승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① 정환국, 『『神斷公案』 제7화 <魚福孫傳>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반면에 몽골의 설화, <사냥을 해서 공을 세우다>, <서낭나무에 묶여 고질병을 고치다>, <대머리 일곱 명과 모뜨고르> 세 편은 가해자의 재산을 차지한 것으로 마지막 부분이 종결된다. <사냥을 해서 공을 세우다>는 ‘노이안의 아내는 하인에게 빠른 말 두 마리를 골라오게 하고, 말에다 상당히 많은 은화를 실어서 빠라컨창에게 건네 주며 그를 전송하였다.’로 종결된다.⁵⁸⁾ <서낭나무에 묶여 고질병을 고치다>는 ‘(달라이 왕의) 작은 마님을 데리고 달라이 왕의 고장을 떠날 때, “내 공골 위라말은 엉덩이 가득 살이 올랐네. 멀리 있는 사랑 너와 함께 부부가 되어 행복하게 살리라!” 이리 노래를 부르며 고향으로 돌아온 거라오.’로 끝난다.⁵⁹⁾ 그리고 <대머리 일곱 명과 모뜨고르>는 ‘모뜨고르는 집으로 돌아와서 일곱 대머리들의 재산을 차지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로 마무리되고 있다.⁶⁰⁾ 이는 모두 주인공들이 가해자의 재산을 차지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서낭나무에 묶여 고질병을 고치다>는 주인공 생계가 가해자의 작은 마님을 데리고 가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 그리고 <대머리 일곱 명과 모뜨고르>에서도 모뜨고르는 왕궁의 아름다운 여인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작은 마님 과 왕궁의 여인 역시 재산의 일부로 볼 수 있다. 달라이 왕은 부인이 많았고, 그 중에 ‘작은’ 부인 한 명이 없어졌기에, 달라이 왕의 입장에서는 부인이나 딸을 잃었다기보다는, 재산상의 손실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 왕궁의 여인 역시, 왕에게는 많은 여인 중 한 명에 불과했고, 사건 전개에서도 모뜨고르의 피쟁이 능력을 보여주는 도구적 소재의 기능을 담당할 뿐이다. 그래서 몽골 설화는 주인공의 재산상 이득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아야

논문, 1994. ② 조상우, 『에국계몽기 한문소설 <魚福孫傳> 연구』,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논집』 제18집, 2002, 287-313쪽. ③ 신원기, 『『조선동화대집』에 나타난 <외쪽의 피>의 대비적 고찰』, 한국문화회, 『한국문학논총』 제79집, 2018.)

58) 주채혁 옮겨 엮음, 『몽고 민담』, 정음사, 1984, 375-379쪽.

59) 유원수 엮음, 『세계 민담 전집 3 몽골 편』, 황금가지, 2003, 149쪽.

60) 데. 체렌소드눔 편저, 이안나 옮김, 『몽골의 설화』, 문학과지성사, 2007, 523쪽.

한다. 뼈라견창, 생계, 모뜨고르의 욕망 실현이 이들 작품의 주제라면, 몽골의 이야기는 주인공의 재산 획득을 강조하고 물질적 가치의 중시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⁶¹⁾

화소 존재의 친연성과 화소 배열의 친연성에서 찾을 수 있는 네 번째 의미는, 이야기 전체의 전파가 아니라, ‘화소의 전파’를 상징할 수 있는 점이다. 어떤 이야기 유형의 전파론적 연구는 대체로 이야기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실증되는 경우가 많다.⁶²⁾ 하지만 전파론적 입장에서 비슷한 유형의 이야기를 살필 경우에는, 이야기 전체의 전파를 비교하기보다는 화소의 전파를 비교하는 것이 훨씬 적절하고 타당하다. 그 이유는 어떤 이야기가 전체로 전파될 가능성보다는, 이야기의 특정 화소가 전파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⁶³⁾ 화소는 전체 이야기보다 분량이 적고 특이한 요소 때문에 기억의 편의를 줄 수 있다.⁶⁴⁾ 이 기억의 편의는 구비문학의 전파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즉, 어떤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

61) 이러한 주제의 차이는, 이야기가 전파될 때, 문화적 배경에 따른 불가피한 변모로 볼 수 있다. 서대석, 『이야기의 의미와 해석』, 세창출판사, 2011, 19쪽.

62) 대다수의 연구가 이야기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논저로는 ① 서대석, 「구비문학의 비교문화적 연구」, 『구비문학연구』 제1집, 한국구비문학회, 1994. ② 조현설, 『건국신화의 형성과 재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③ 최인학 외, 『한·중·일 설화 비교 연구』, 민속원, 1999. ④ 윤승준, 「한·몽 설화의 비교」, 『비교민속학』 22집, 비교민속학회, 2002. ⑤ 장두식, 「한몽 설화에 나타난 여성성 비교 연구」, 『몽골학』 제17호, 한국몽골학회, 2004. ⑥ 장장식, 「한국과 몽골 설화의 비교연구」, 『비교민속학』 33집, 비교민속학회, 2007.

63) 화소는 다원발생이 유형에 비해 용이하기 때문에, 어떤 화소가 다원발생으로 나타난 것인지 전파되어 나타난 것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특이한 화소가 특정 지역에서만 확인될 경우에는, 넓은 지역에서 확인될 경우보다 전파의 가능성을 더 높게 보아야 한다. <외쪽의 피>와 몽골 설화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화소는 다른 지역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화소는 전파에 의해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64) 話素는 쉽사리 파괴되지 않고 용이하게 기억되며 독립적인 생명을 지니기에, 같은 화소가 서로 다른 類型에서 나타날 수 있다. 장덕순 외, 『口碑文學概說』, 일조각, 1971, 52쪽.

로 이야기가 전파되는 상황에서는 화소가 유형보다 기억하기 편하기에, 그 전파의 역할과 기능을 훨씬 더 잘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파된 화소는 비슷한 유형의 이야기에 결합될 가능성도 크지만, 화소끼리의 결합을 통해 하나의 이야기뿐 아니라, 여러 이야기에 투입할 수 있으므로, 전파의 다양한 변이형을 만들 수 있다. 즉, 화소는 유형에 비해 분해와 결합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야기의 전파에서 기하급수적 팽창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다원발생(多元發生)이 아닌 전파의 상황에서는, 이야기 전체의 전파보다는 화소의 전파가 쉽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⁶⁵⁾

V. 맺으면서

본고는 ‘피쟁이 하인’의 최초 기록인 <외쪽의 피>를 기본 텍스트로 하여, 한국과 몽골의 ‘피쟁이 하인’ 설화의 화소(話素, motif)를 비교했다. 한국 설화 <외쪽의 피>와 몽골 설화 <사냥을 해서 공을 세우다>, <서낭나무에 묶여 고질병을 고치다>, <대머리 일곱 명과 모쓰고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화소는 ‘자신에게 불리한 글 내용 바꾸기’, ‘속박되어 나무에 매달리기’, ‘제3자를 이용해 나무에서 탈출하기’, ‘비현실적으로 가해자 속이기’, ‘가해자 살해와 가해자의 딸(또는 재산) 차지하기’ 등이었다.

이러한 공통 화소가 구체적인 이야기에서 실현될 때는 나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피쟁이의 등에 글을 바꿔 써 주는 인물이 달랐고, 피

65) 모든 이야기의 시작, 변형, 전승의 출발을 특정한 모티프(화소)로 보는 시각도 있다.(이혜정, 『그림형제 독일민담』, 뮤진트리, 2010, 9쪽.) 그리고 다원발생의 경우에도 이야기 ‘전체’보다는 ‘화소(모티프)’의 다원발생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한다.(카트린 피게-알더 지음, 이문기 옮김, 『민담, 그 이론과 해석』, 유로서적, 2009, 189쪽.)

쟁이 대신 나무에 매달리는 제3자의 신분도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피쟁이가 비현실계로 가해자를 속이는 경우에도, 비현실계가 용궁, 염라대왕 등으로 달라지기도 했다. 또한 한국의 피쟁이는 가해자의 딸을 차지하는데, 몽골의 피쟁이는 가해자의 부인이나 재산을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몽골의 설화는 서로 비슷한 화소를 공유했고, 어떤 경우에는 그 화소의 배열도 비슷했다. 즉, ‘화소 존재의 친연성’과 ‘화소 배열의 친연성’이라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화소의 친연성(親聯性, affinity)이 구비문학의 전승과 연구에 시사하는 바는 네 가지였다. 첫째, 한국과 몽골의 ‘피쟁이 하인’ 설화는 전파에 의해 생성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두 이야기의 화소가 비슷하고, 그 배열도 비슷했기 때문이었다. 둘째, 한국 ‘피쟁이 하인’ 유형에서 상전(上典) 살해의 화소는 몽골 설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몽골의 설화가 사건 전개와 주제 면에서 일관성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셋째, 한국 설화는 신분적 가치를 중시하고, 몽골 설화는 물질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한국의 설화는 가해자의 딸을 차지하는 것으로 종결되고, 몽골의 설화는 가해자의 재산을 차지하는 것으로 종결되었기 때문이었다. 넷째, 이야기 전체의 전파가 아니라, ‘화소의 전파’를 상정할 수 있다는 점이였다. 전파의 경우에, 이야기 전체보다 이야기의 부분인 화소가 기억하고 전달하기에 편하기 때문이었다.

본고는 한국 1편, 몽골 3편의 ‘피쟁이 하인’ 설화 자료를 분석했다. 제한된 자료로 인해, 다양한 각편의 비교를 시도하지 못한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많은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더 다양한 비교를 통해, 더욱 선명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제는 후고를 기약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 민속의 세계』 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 김광언 외, 『바람의 고향, 초원의 말발굽』, 조선일보사 출판국, 1993.
- 김국희, 「상전 속인 하인 모티프의 갈래별 전개」, 『한국문학논총』 제44집, 한국문학회, 2006, 157~188쪽.
- 김열규 외, 『民談學概論』, 일조각, 1982.
- 김정배 외, 『몽골의 암각화』, 열화당, 1988.
- 김화경, 『한국의 설화』, 지식산업사, 2002.
- 김현선, 「건달형 인물이야기의 존재 양상과 의미」, 『경기어문학』 제8집,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90, 97~157쪽.
- 나수호, 『한국 설화에 나타난 트릭스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박원길, 『몽골의 문화와 자연지리』, 민속원, 1999.
- 박혜숙, 『소설의 등장인물』,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 서대석, 「구비문학의 비교문화적 연구」, 『구비문학연구』 제1집, 한국구비문학회, 1994, 13~39쪽.
- 서대석, 『이야기의 의미와 해석』, 세창출판사, 2011.
- 손진태, 『한국 민족설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82.
- 신동훈, 「신분갈등 설화의 공간구성과 주제」, 『관악어문연구』 제14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9, 103~128쪽.
- 신연우, 「‘상전 속인 하인’ 설화의 사회성과 신화성」, 『한국민속학』 제37집, 한국민속학회, 2003, 109~128쪽.
- 신원기, 『조선동화대집과 설화교육』, 보고서, 2017.
- _____, 「『조선동화대집』에 나타난 <외쪽의 피>의 대비적 고찰」, 한국문학회, 『한국문학논총』 제79집, 2018, 137~196쪽.

- 신현덕, 『몽골』, 휘슬러, 2005.
- 유원수 엮음, 『세계 민담 전집 3 몽골 편』, 황금가지, 2003.
- 윤승준, 『한·몽 설화의 비교』, 『비교민속학』 22집, 비교민속학회, 2002, 233~260쪽.
- 이나미, 『용, 호랑이 탄 한국인과 놀다』, 민음인, 2010.
- 이재선, 『한국문학 주제론』,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9.
- 이혜정, 『그림형제 독일민담』, 뮤진트리, 2010.
- 임석재, 『韓國口傳說話』, 평민사, 1993.
- 장덕순 외, 『口碑文學概說』, 일조각, 1971.
- 장두식, 『한몽 설화에 나타난 여성성 비교 연구』, 『몽골학』 제17호, 한국몽골학회, 2004, 123~142쪽.
- 장장식, 『몽골민속기행』, 자우출판사, 2002.
- 장장식, 『한국과 몽골 설화의 비교연구』, 『비교민속학』 33집, 비교민속학회, 2007, 199~228쪽.
- 정준식, 『‘피쟁이 하인 설화’의 형성과정과 전승양상』, 『문화콘텐츠연구』 제11집, 동의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2005, 395~423쪽.
- 정환국, 『『神斷公案』 제7화 <魚福孫傳>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조상우, 『애국계몽기 한문소설 <魚福孫傳> 연구』,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논집』 제18집, 2002, 287~313쪽.
- 조동일,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 영남대학교 출판부, 1979.
- 조현설, 『건국신화의 형성과 재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조희용, 『트릭스터譚의 史的 小考』, 『說話學綱要』, 새문사, 1989.
- 주채혁 역주, 『몽골 구비 설화』, 백산자료원, 1999.
- 주채혁 옮겨 엮음, 『몽고 민담』, 정음사, 1984.
- 최남선, 『육당 최남선 전집』 5, 현암사, 1973.

- 최시한, 『소설의 해석과 교육』, 문학과지성사, 2005.
- 최인학 외, 『한·중·일 설화 비교 연구』, 민속원, 1999.
- 하은하, 「<피쟁이 하인> 설화의 변형을 통해 본 트릭스터의 순기능과 역기능」, 『문학치료연구』 제34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5, 319~344쪽.
-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1992.
- 한국사연구회 편,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 上, 지식산업사, 2017.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 한국학중앙연구원,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 한상복 외, 『문화인류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 데. 체렌소드눔 편저, 이안나 옮김, 『몽골의 설화』, 문학과지성사, 2007.
- 체렌소드눔 지음, 이평래 옮김, 『몽골 민간 신화』, 대원사, 2001.
- D.마이달·N.츄르템 저, 김구산 역, 『몽고문화사』, 동문선, 1991.
- 라자노프스키 저, 서병국 역, 『몽골의 관습과 법』, 한국학술정보, 2005.
- 블라디미르 프롭 지음, 황인덕 옮김, 『민담형태론』, 예림기획, 1998.
- 제랄드 프랭스 저, 최상규 역, 『서사학』, 문학과지성사, 1988.
- 제랄드 프린스 지음, 이기우·김용재 옮김, 『서사론사전』, 민지사, 1992.
- 카트린 뢰게-알더(Kathrin Pöge-Alder) 지음, 이문기 옮김, 『민담, 그 이론과 해석』, 유로서적, 2009.
- Stith Thompson, *The Folktale*, Dryden Press, 1946.
- Stith Thompson, *THE TYPES OF THE FOLKTALE*, Indiana University, 1973.

<자료-‘피쟁이 하인’ 이야기 감상 조사지 양식>

<피쟁이 하인> 이야기를 읽고서...

(일자: 2019. . . . 소속:)

1. 피쟁이 하인은 주인에게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2.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3. 피쟁이 하인은 주인 영감을 괴롭혔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4.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5. 주인이 물에 빠져 죽음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6.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7. 하인이 주인을 물에 빠져 죽이고, 주인의 딸과 함께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8.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9. 주인의 어떤 행위가 가장 비난 받아야 할 행위인가?
10. 하인의 어떤 행위가 가장 비난 받아야 할 행위인가?
11. 주인과 하인 중 누가 더 정당한(착한, 옳은) 인물인가?
① 주인 ② 하인 ③ 누구도 정당하지 않다.
12.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13. 자신이 주인이라면, 서울에서 내려온 후에 하인을 어떻게 처리했겠는가?
14. 자신이 주인이라면, 다시 살아온 하인을 어떻게 처리했겠는가?
15. 자신이 하인이라면,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서 주인에게 어떻게 했겠는가?

16. 하인이 자기 대신 잔질개 할멈을 희생시키는 행위는 옳다고 생각하
는가? 그 이유는?
17.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18. 만약 본인이 하인 대신 희생당하는 잔질개 할멈이었다면 어떤 심정
이었겠는가?
19.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주인 딸은 하인과 함께 살게 된다. 자신이 딸
이라면 어떤 심정이겠는가?
20. 전체적으로 이 이야기에 대한 느낌은?[재미있다, 불편하다, 행복하
다, 이상하다, 신기하다, 역겹다, 새롭다, 시시하다, 당연하다, 불쌍하
다...] 그렇게 느낀 이유는?
21. 그 외에 이 작품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말.(가능하면 이유를 들어 서술
할 것.)

<Abstract>

A Study of Motifs in Mongolian Folktales
Expressed <Oezzok's Tricks> in *Joseon
Donghwa Daegip*(*A Great Anthology of
Korean Fairy Tale*)

Shin, Won-Gie*

This study consider the motifs in 'tricky servant' of Korea and Mongolia comparatively, by using basic text <Oezzok's Tricks>, the earliest record of 'tricky servant'.

It is common motifs in Korean <Oezzok's Tricks> and Mongolian <Performing a Meritorious Deed by Hunting>, <Curing by Binding Shaman's Tree>, <Seven Baldheads and Mozgor>: changing unfavorable writing to oneself, hanging from a tree to be bound, escaping from a tree by using a third person, tricking attacker by unreality, murdering attacker and taking possession of attacker's daughter(or property).

There are a few differences from country to country as the common motifs are realized in each version. Despite these gaps, however, Folktales of Korea and Mongolia share similar motif each other, sometimes including similar sequence of motif. That is, 'affinity of motif existence' and 'affinity of motif sequence' are identified in them.

* Dong Cheon High School.

This affinity of motif has four implications to transmission and study of oral literature. First, folktales of ‘tricky servant’ in Korea and Mongolia are supposed to

have created by diffusion. Second, motif of ‘murdering attacker master’ in ‘tricky servant’ type of Korea is deeply influenced by Mongolian Folktales. Third, Korean folktale focuses on positional value and Mongolian Folktales on material value respectively. Lastly, diffusion of motif rather than diffusion of whole story can be supposed.

Key Words : tricky servant, affinity of motif, influence of Mongolian Folktales, positional value, material value, diffusion of motif

■ 논문접수 : 2020년 6월 17일

■ 심사완료 : 2020년 8월 16일

■ 게재 확정 : 2020년 8월 24일

